

# 옛 나주극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나주시, 문화 재생사업 좌담회  
시민·전문가·사업 관계자 참여  
사업 추진 방향·활용 방안 모색



나주시가 옛 나주극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춘다. 나주극장 1980년(왼쪽), 2020년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옛 나주극장을 활용한 문화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7일 전문가와 시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나주극장 좌담회-談場(담장)'을 연다.

좌담회에서 유류 공간 문화 재생 전문가 강연을 비롯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옛 나주극장의 추억을 공유하고 문화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향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김영협 전 지역문화진흥위원장이 '문화 재생을 통한 공간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고 좌담회 초청자와 시민이 대화와 토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 재생사업은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내 유류공간을 찾아 특성에 맞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주시는 옛 나주극장이 가진 역사, 장소적 가치를 되살리고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테마로 근

대 문화·예술·생활역사를 영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옛 나주극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나주 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 공장, 잠사(누에) 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선 나주지역 최초 극장이다.

극장 내부 관객석은 2층 구조로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



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해오며 시민들의 추억을 보유한 대표적인 근대문화시설로 꼽힌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억 속 잠들어있던 옛 나주극장 공간에 대한 가치와 향수를 공유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 재생 공간 조성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포럼, 좌담회 등을 지속해서 열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문화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강진군 영유아 구강검진 3회→4회로 확대

강진군은 영유아(만 6세 미만) 구강검진을 당초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당초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42-53개월 ▲3차 생후 54-65개월 총 3회에 걸쳐 실시했다.

하지만 1차 검진 기간이 지난 후에 영유아 치아 우식증이 증가하고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가 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영유아 시기에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검사시기에 해당되는 영유아는 관내 김치과, 바른치과, 중앙치과 등 검진 기관 및 전국 지정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검사, 구강위생교육, 보호자 대상 구강보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숲 속 텃밭 가꾸며 심신 치유하세요



나주 시민들이 산림자원연구소 내 조성된 치유테밭을 가꾸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보건소·전남도 산림자원연구원 치매·고위험군 치유패 프로그램

"숲 속 텃밭 가꾸며 힐링하세요"

나주시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심신 회복과 안정을 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 보건소는 산림자원연구소 내 조성된 치유테밭(산림치유패)에서 모종 식재를 시작으로 텃밭 심리지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림치유패는 지난해 10월 보건소와 연구소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조성됐으며 이들은 올 연말까지 '힘내요! 기운내요! 힐링해요!'를 주제로 치매 어르신과 고위험군 12가구 대상 1가구 1텃밭 맞춤형 치유 텃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텃밭에 가꾸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며 산약초, 잎삼 채소류, 계절별 모종 심기, 제초, 관수 등 관리와 작물 수확 등 다양한 산림치유패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보건소는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지표를 산출하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치유효과 측정검증을 위한 참여자 사전·사후 뇌파검사, 맥파 체크 등 생리적 지표를 검증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서현승 나주시 보건소장은 "숲과 텃밭 활동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의 인지 능력,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우울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담양군 1박 2일 '초보농부 영농현장 팸투어'

도시민 27명 농업·농촌 체험

담양군이 지난달 29일, 30일 이틀간 진행된 '제12기 초보농부 영농현장 팸투어(사전답사여행)' <사진>을 성황리에 마쳤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2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담양군 월산면에 위치한 용오름 자연학교에서 1박 2일간 지내며 담양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귀농·귀촌 정책 안내와 영농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참가한 도시민들은 귀농인 정착 사례, 커피농장 견학 및 바리스타 체험, 치유농업 및 압화 체험 등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을 진행했으며, 메타랜드를 방문해 담양 문화를 탐방하고,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 '귀농인의 집'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담양군은 8월과 9월, 10월 3기수를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farmdamyang.org)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많은 도시민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고장, 귀농하고 싶은 담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 함평군 군도 20호선 목교마을 구간 개선 착공

함평군이 군도 20호선 손불 목교마을 구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함평군은 최근 도로 선형 불량으로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군도 20호선 손불 목교마을 구간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L=0.3km, B=8.5m)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목교마을을 통과하는 급커브 도로로,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군은 지난해 실시설계,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

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도로와 마을이 분리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에 대한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